

독일 출장 보고서

1. 출장개요 및 목적

출장목적

-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Korea & New Career Opportunities in Germany” 세미나(주 독일 한국대사관 주최)에 참석하여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및 전망 발표
 - 주 독일 한국대사관에서 독일기업의 한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경제의 강점과 기초 여건, 향후 전망 등을 소개
- 독일 경제 동향 및 전망 면담,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 (DIW/ das Deutsche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 유로존 핵심 국가이며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 경제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및 구조적 이슈 등에 대해 면담

출장자

- 김성태 경제전망실장

방문지

- 독일 베를린

출장일정: 11월 17일(일) ~ 11월 21일(목) (5일간, 이동시간 포함)

- 11월 17일 11:00 (서울 출발) ~ 11월 17일 18:00 (베를린 도착)
- 11월 18일 14:00,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11월 19일 14:00, DIW 면담

- 11월 20일 14:00 (베를린 출발) ~ 11월 21일 12:00 (서울 도착)

2. 출장 세부 내용

1) 주 독일 한국대사관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내용

-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주요 정책 소개
- 최근 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
- 한국경제의 기초여건 및 대외건전성
- 한국의 중장기 성장률 전망 및 구조개혁 이슈

□ 토론내용

-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Global Value Chain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관계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2)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 면담

□ 면담자: Claus Michelsen 경기정책 팀장

□ 면담내용

- DIW는 경제 전반에 걸친 평가 및 전망을 연례 2차례 정부에 보고하는 독일 5대 경제연구소의 하나임.
- 독일경제는 2016~17년 기간 중 수출을 중심으로 2%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8년부터는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짐. 2019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부터는 1%대 중반까지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 GDP성장률(%): 2016 (2.2) → 2017 (2.5) → 2018 (1.5) → 2019 (0.5) → 2020 (1.4) → 2021 (1.4)

- 특히, 자동차 산업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독일 내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작년 60만명에서 금년 40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며, 향후 2년 동안은 2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음. 독일경제 또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 중에 있음.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 인력에 대한 법에 따르면 이전보다 외국 노동자 고용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수입을 촉진하고 있음.
-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보수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재정수지는 2011년에 -0.9%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는 균형 혹은 소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금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재정기조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결과 재정수지 흑자가 GDP 대비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기구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어 재정책대개 쉽지 않음.
- 세계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 중 미중 무역분쟁과 no-deal brexit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향후 독일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다만, 독일은 실물 및 금융 측면에서 견실한 기초여건을 마련하고 있어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